

# “科學技術立國에

金大中대통령, KIST창립32주년기념식서

존경하는 과학기술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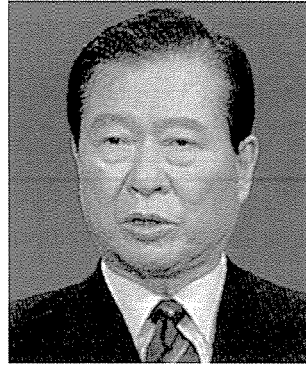
오늘 KIST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나라 장래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자리에서 대화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매우 의미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21세기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대혁명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中略...』

이와 같은 때에 모든 민족이나 국민들은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자기 나라가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경쟁무대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국경을 만들어 두고 자기방어를 하던 시대는 완전히 지났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국경이 소멸되고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제경쟁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면 아무리 선진국가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장래의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이 경쟁의 대열에서 승리하면 어제의 후진국가도 오늘은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의 번영은 과학기술력 덕분

또한 우리는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너무도 절감하게 됩니다. 80년대의 미국은 경제가 아주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적자 투성이고 수출은 안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때 우리는 미국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특별 구매사절단을 보내서 40억불 정도의 물건을 사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이제 세계의 최선두에 서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앞장 선 경제의 찬란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힘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80년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기초과학분야만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의



金大中  
(대통령)

미국을 세계 최정상 경제대국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中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IMF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수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경쟁력있는 물건을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러한 물건을 만들 때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경쟁에서 이겨냄으로써 수출에서 많은 흑자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겨

내려면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자가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입을 줄여야 합니다. 수입을 줄이는데 있어서 우리는 수입대체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과학기술자가 해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잘 하면 수출에 있어서 금년에는 100억불 이상 흑자를 낼 것입니다. 또한 수입도 대체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키면 여기서도 최고 약 200억불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 발전에 최대한 지원

셋째, 우리는 외국투자를 많이 끌어 들여야 합니다. 투자와 자본은 이제 국적이 소용없어졌습니다. 그 자본이 어디에 투자되느냐가 문제입니다. 『中略...』

많은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상환의 필요도 없고 이자도 필요없는 외화를 가지고 우리의 부채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런 외국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외국기업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

# 새정부의 승부걸겠다”

## 과학기술인들에게 격려·당부

시 말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야 합니다. 세계문제라든가 과학과 기술의 마인드를 가진 많은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MF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수입 그리고 외자도입 이 세가지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세가지 모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공헌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화려한 나무의 과실이라면 과학기술은 튼튼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뿌리 없이는 화려한 꽃도 과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 과학기술 존중 과거 정부와 다를것

KIST가 지난 32년의 역사에서 국가기반산업기술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적 연구개발체제 정착의 모체역할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여러분이 선도해 온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6, 7천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만족할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업적을 올려야 하고 세계적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담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정부는 분명히 말씀드리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우리의 내일을 거는, 거기에서 승부를 결정하는『과학기술 입국』의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도 과장이 아니고 저의 확고부동한 결심입니다. 당의 정책으로서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킨 것도 사실은 과학기술담당 부총리를 들기까지도 생각했었는데 부총리제는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

라 명예와 지위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처우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과학기술자의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과학기술자인 것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못지않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풍토를 이 나라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국운을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과총주최 과학기술인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2월에 이렇게 온것도 제가 행동으로 과학기술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얼마나 격려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 科技人の 명예와 지위, 처우도 개선

이 나라 장래가 여러분의 양 어깨에 걸려있습니다. 정부가 혹시 재정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정신만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게 여러분을 성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면에 있어서도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협력하여 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진흥시켜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의 선진대열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자 여러분 !

비록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없는 중요성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새정부가 이제 출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못지않는 수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中略 ...』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여 이 나라 과학기술을 세계 정상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나라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는 IMF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당히 세계 최선진대열의 국가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북한동포 그리고 세계 후진국에 있는 여러 인류들을 위해서도 공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가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건투와 분발을 마음으로 부터 빌면서 다시한번 KIST 32주년을 축하드리며 저의 축사를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⑤